

“류현진, 부상만 없으면 사이영상도 가능”

류현진 “오랜만의 실전, 느낌 좋아”
로버츠 감독 “30경기 등판 기대해”
포수 마틴과 배터리 호흡도 안정적

‘괴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류현진(32·LA 다저스)의 2019시즌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류현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 시범경기에 선발등판,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네 타자를 상대했고 투구수는 13개에 불과했다. 최고구속은 시속 90마일(약 145km)까지 나왔다. 지난해 평균구속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막한 달 전임을 감안하면 준수한 기록이다.

네 타자를 상대로 모두 초구 불을 던졌지만 볼카운트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갔다. 류현진 특유의 노련미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선두 풀 같흔은 볼카운트 1B에서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빗맞은 안타를 때려냈다. 하지만 류현진은 후속 피터 벵조스와 케빈 스미스를 연달아 뜬공으로 돌려세우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자넷 파커를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이날 등판을 마쳤다. 체인지업과 커브에 이어 속구가 날아오자 파커는 맥없이 방망이를 헛들었다. 이날 현지 중계를 맡은 ‘스포츠넷LA’ 중계진은 류현진의 투구 도중 “지난해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는데, 건강하면 ‘사이 영 어워드’ 경쟁에 뛰어든 만한 선수”라고 극찬했다.

류현진은 1회말 공격 도중 불펜으로 이동, 17구를 더 던져 30구를 채운 뒤 이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앞서 두 차례 불펜피칭과 한 차례 라이브피칭을 소화한 그는 첫 실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시즌의 2019시즌 출발을 알렸다.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기분 좋게 던졌다. 안타와 삼진 한 개씩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1이닝이지만 불빛 없이 마무리한 게 가장 좋다”며 “체인지업은 다소 높았지만 커브 제구가 잘됐다”고 자평했다. “오랜만의 실전인데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 지난해보다 몸 상태가 더 올라온 듯하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이날 경기 전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이 30경기에 등판했으면 좋겠다. 아프지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류현진 역시 “현재까지 과정은 마음에 든다. 나도 30경기 정도 등판하고 싶다. 몸 관리를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날 류현진의 배터리 파트너는 러셀 마틴이었다. 2006~2010년 다저스에서 뛰었고 올 시즌에 앞서 재영입된 베테랑 선수다. 1이닝이라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호흡 자체는 안정적이었다. 류현진은 “마틴과 아침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호흡은 처음 맞춰봤지만 워낙 베테랑 포수다. 타자의 장단점에 대해 많은 노하우가 쌓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렌데일(미 애리조나주)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LA 다저스 류현진이 2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글렌데일 캐멀백랜치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 시범경기에 등판한 뒤 클럽하우스에서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글렌데일(미 애리조나 주) | 최익래 기자

“구속 욕심에 어깨 이상” 커쇼 부상 심상치 않다



커쇼

사령탑의 신뢰는 굳건하지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주 최강’ 클레이튼 커쇼(31·LA 다저스)의 어깨가 심상치 않게 때문이다. 다저스와 LA 에인절스와 스프링캠프 시범경기가 열린 2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 다저스 클럽하우스는 평소와 비해 다소 가라앉았다. 선수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훈련 준비에만 매진했다. 커쇼가 훈련 일정을 중단한 뒤로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됐다.

커쇼는 19일 라이브피칭, 21일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하지만 22일 “느낌이 안 좋다”는 이유로 훈련을 쉬었다. 급기야 23일에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그에게 휴가를 췌고, 실내훈련을 마친 뒤 귀가했다. 24, 25일 이틀간은 웨이트 트레이닝만 소화했다. 커쇼는 23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쉬어야 할 것 같다. 이대로는 시즌 준비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고 밝힌 뒤 훈련장을 떠났다. 로버츠 감독에 따르면 커쇼는 마지막 투구훈련이었던 21일 불펜피칭 직후 한껏 풀죽은 모습이였다.

25일 로버츠 감독에게 커쇼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로버츠 감독은 이날 처음으로 커쇼의 훈련 중단 원인을 밝혔다. 문제는 어깨였다. 그는 “보고상으로 그의 어깨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MRI(자기공명영상) 촬영까지는 필요 없다. 시즌에 차질이 생길 정도는 결코 아니다”며 “웨이트 트레이닝만 소화하고 있지만 기죽은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덧붙였다.

커쇼는 2008년 메이저리그 데뷔 후 318경기에서 2096.1이닝을 소화했다. 해마다 최소 190이닝씩 이상을 소화한 셈이다. 몸이 멀쩡할 리 없다. 징후는 구속에서 나타났다. 커쇼의 속구 평균구속은 2015년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2015년 평균 94.3마일(약 151km)에서 지난해 91.4마일(약 147km)까지 떨어졌다. 메이저리그 평균(92.7마일)에도 못 미쳤다. 로버츠 감독은 “구속을 끌어올리기 위한 욕심이 불협화음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도 “커쇼는 속구 외에도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이 뛰어난 투수”라고 강조했다.

커쇼는 곧 다저스의 상징이다. 로버츠 감독은 스프링캠프 시작부터 커쇼를 개막전 선발이라고 공언했다. 2011년에 이어 9년 연속 기록이 이어질 듯했다. 하지만 일정을 중단하면서 기록 행진이 멈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버츠 감독이 “커쇼는 여전히 개막전 선발”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주 최강에서 인간계로 내려온 커쇼는 올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다저스 마운드에 시작부터 노란불이 켜졌다.

글렌데일(미 애리조나주) | 최익래 기자

“야구 얘기만 했으면...” 류중일의 한숨

카지노·음주운전 사건 등 책임 통감
2차 캠프 출국 앞서 재발 방지 약속

“야구 얘기만 해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LG 트윈스 류중일 감독(56)은 25일 2019시즌 스프링캠프 2차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깊은 한숨을 내뿜었다. 이어 그가 남긴 한 마디에는 최근 며칠간의 마음고생이 함축돼 있는 듯 했다.

이날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한 LG는 1차 캠프를 비롯해 이후 휴식일까지,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차우찬·오지환 등이 1차 캠프지인 호주 블랙타운에서 카지노에 출입해 논란을 빚었고, 2차 캠프 전 휴식일에는 내야 기대주 윤대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임의탈퇴 조치됐다.

최근 타 구단 선수들이 주로 ‘스포츠클럽’에서 캠프 소식을 전한 반면, LG는 ‘사회면’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했다. 잠잠하다 싶으면 터지는 팀의 야구 외적인 문제에 류 감독 또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류 감독은 “야구 얘기만 해도 얼마나 재미있나. 이게 야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뒤편 드릴 말씀이 없다. 핑계를 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이 연달아 야구 외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LG 트윈스 류중일 감독이 스프링캠프 2차 출국을 앞둔 25일 공항에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 | 정은상 기자

말아야 한다. 사전 교육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인데, 구단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사건이 발생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류 감독은 단순히 상황 한탄만을 하지 않았다. 팀 수장의 책임감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선수단 관리에 더욱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짧고 굵은 한 마디를 남겼다.

류 감독의 얼굴은 시즌 도중 경기에 집중할 때처럼 인터뷰 내내 붉게 상기돼 있었다. 선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야구’ 자체의 소식만을 전하고픈 류 감독의 2019시즌 목표는 올해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 출발이 좋지 않았던 LG 선수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인천국제공항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음주운전’ 윤대영, 이중징계 불가피

임의탈퇴로 1년 지나야 복귀 가능
KBO 징계는 복귀 시점부터 효력

이중징계는 불가피하다. 음주운전을 하다 24일 경찰에 적발된 LG 트윈스 윤대영(25)은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윤대영은 혐의를 인정했고, 구단의 징계에도 동의했다.

임의탈퇴는 중징계다. 원 소속구단의 동의 없이 타 구단과 계약이 불가능하다. 복귀 신청도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최소 1년간 KBO리그 무대를 밟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당연히 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그 공백이 선수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질 당일 윤대영을 임의탈퇴 조치한 L

KT 로하스 “올해도 개근상 받아야죠”

“끝맺지 못한 일, 가을야구 이끌 것”

“수원에서 가을야구를 즐기고 싶다.” 2018년 KBO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맬 로하스 주니어(29·KT 위즈)였다. 한국 무대 2년차인 로하스는 올해도 KT와 함께 한다. 목표는 단 하나,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포스트시즌(PS)이다.

로하스는 지난 시즌 종료 후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단장들이 모이는 워터미팅까지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실제로 일부 구단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도 오고갔다. 물론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은 아니었지만 돈보다는 꿈을 좇겠다는 로하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로하스는 결국 KT와 도장을 찍었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키노스 포트컴플렉스에서 진행 중인 KT 스프링캠프에서 최근 만난 로하스는 “고민이 많았지만 올해는 KT 소속으로 뛰고 싶었다. 끝맺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KT의 PS다. KT는 1군 진입 후 2018시즌 최고 성적을 기록했지만 9위에 불과했다. 로하스는 “올해는 더 높은 성적을 내야 한다. KT위즈파크에서 치르는 PS는 가장 큰 꿈”이라고 덧붙였다.

PS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로하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는 기록에



KT 로하스

대해 별다른 욕심이 없다. 목표는 하나, 전 경기 출장이다. 그는 지난해 144경기 만에 개근하며 외국인 선수로는 역대 다섯 번째로 전 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2007년 클리프 브룸바(당시 현대 유니콘스) 이후 11년 만이다. 경기수가 늘어난 만큼 가치는 더 컸다. 아직 2년 연속 전 경기 출장을 달성한 외국인 선수는 한 명도 없다.

로하스는 “개인적인 목표는 전 경기 출장뿐이다. 다른 기록은 딱히 욕심나지 않는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사이클이 있으니 기록을 위해서면 한두 번 쉬는 게 낫다. 하지만 팀에는 도움이 안 된다. 개근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시즌 144경기에서 타율 0.305, 43홈런, 114타점을 마크했다. 대체선수대 비승리 기여도(WAR)는 5.66으로 리그 5위, 외야수 3위였다. 하지만 로하스는 골든글러브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로하스는 “솔직히 실망하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주변 고압계 받았지만 내 진짜 목표는 아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시즌 수원의 가을을 이끈 로하스가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는 것. KT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투산(미 애리조나주) | 최익래 기자



윤대영

G의 결정을 두고 “제대로 끝을 맺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연스럽게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KBO 정금조 운영본부장은 25일 “(윤대영에 대한) 상벌위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뒤 복귀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G가 윤대영의 임의탈퇴를 해제할 경우 빠르면 2020시즌

복귀가 가능하다. 정 부장은 “LG로부터 본격적으로 보고를 받으면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구단에서 임의탈퇴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만약 윤대영이 KBO로부터 출장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복귀 시점부터 징계가 효력을 발휘한다. 2018시즌이 끝나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진 강민국(KT 위즈)과 임지열(기움 히어로즈)은 KBO로부터 나란히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